

오늘의 기사판

제 79회 순천사랑 아카데미 오후 2시 순천문화예술회관 소극장

9일
행사
▲제 44주년 소방의 날 기념 행사=오전 10시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 무안군 송달문화예술회관. 장흥군 공설운동장 등.
▲휴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오전 10시 전남 농업지역본부 대강당.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컨퍼런스=오후 1시5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한 지역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임진수 한국해양연구원 실장이 '2012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성공적 유치전략', 송진희 호남대 교수가 '성공적 박람회 유치를 위한 범국민적 유치불 조성방안', 김진기 한영대 교수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

▲제 79회 순천사랑 아카데미=오후 2시 순천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신달자 명지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강연.
▲제 510회 21세기 장성아카데미=오후 4시30분 장성군청 4층 대회의실.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의로운 땅, 전남의 운명을 바꾸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강연.
▲광주·전남경총 금요조찬연수회=오전 7시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연회장. 신원동 한국인대 전략연구원이 '상상의 팀 리더십'에 대해 강연.
▲제 10회 북구청장기 생활체육기트볼대회=오전 9시20분 광주시 북구 어린이대공원 게이트볼구장.
▲제 8회 지령이를 이용한 환경보전 심포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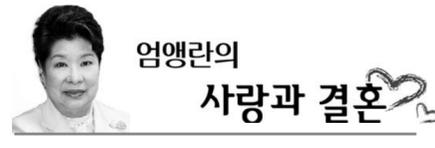
=오전 10시 장흥군 문화예술회관. 박명규 유니드(주) 팀장이 '지령이를 이용한 목재공장의 슬러지 처리기술', 유재석 U&D 미네랄(주) 사장이 '지령이 황토미용비누 발명특허 개발사례'에 대해 주제 발표. 진병교 장흥군 장평면 지령이생태학습장 교장이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령이 환경체험 교실도 운영.
▲제 5회 광주평생학습축제 개막식=오후 1시 40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월빙 장성 문화촌촌 재발견 장성군 황토메카 특화전략 세미나=오후 2시 장성군청 4층 대회의실. 이학수 봉송황토마을 촌장이 '황토건축과 구들', 남상도 한마음공동체 대표이사 '황토문화를 활용한 새로운 농촌건설',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킹대표가 '변화에 대응한 농업농촌발전전략'에 대해 주제 발표.

▲제 130회 강진다산강좌=오후 3시 강진군 문화회관. 임내현 법무법인 세종 고문변호사가 '우리는 21세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
▲우리쌀 소비촉진 한마당=오후 3시 삼구시민공원.
▲소프라노 이현정 귀국 독창회=9일(목) 오후 7시30분 광주 문예회관 소극장.
▲2006 오페라 나비부인=9~10일 오후 7시 순천문화회관 대극장.
▲광주시립무용단 제 87회 정기공연 '서동요'=10일(금) 오후 7시30분, 11일(토) 오후 5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놀이패 신명 제 35회 정기공연 창작극 다섯마당 '청산은 날더러'=10일(금) 오후 7시30분, 11일(토) 오후 4시,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사)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광주·전남지부 영성동호회 제 1회 회원사진전=11일까지 KT광주정보통신센터 1층 갤러리.
▲육군 진중 창작품 광주전남 전시회=12일까지 시청 시민전시실.

뉴스퀴즈

37.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지이언츠가 소속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 선수와 오는 2010년까지 4년 장기 계약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구체적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에 입단한 '고질라' 마쓰이 히데키를 계약의 잣대로 삼았거나 타이론 우즈(주니치 드래곤즈·연봉 5억 엔)를 넘어선 대우를 해줬다는 말도 있어 4년간 최대 30억엔 인원이 될 것이라는 계산도 나옵니다.
요미우리 지이언츠의 4번 타자로 올 시즌 41홈런, 108타점을 한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이승엽 ② 이종범 ③ 최희섭 ④ 구대성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당첨자 1명,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담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쿼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엄앵란의 사랑과 결혼

48 연상녀 연하남

언제부터가 연상녀·연하남 커플이 사회의 한 트렌드가 되었다. 우리 주변에서, 또 드라마에서도 눈에 띄게 흔해졌으며 이는 최근에 생겨난 새로운 현상만은 아니다. 우리 조상들의 경우 가문과 대를 잇는다는 명분을 위해 어린 나이에 성숙한 신부를 맞이하는 조혼의 풍습이 있었고, 혹자는 여성의 평균수명이 더 길기에 나이 어린 남자를 만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현상이라고 까지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정신연령을 언급하면서 남성의 나이가 많아야 정신연령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연상녀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점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연상 여자와 연하 남자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이제는 전혀 이슈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식의 정도나 정신연령으로 판가를 되어지는 지(知)적인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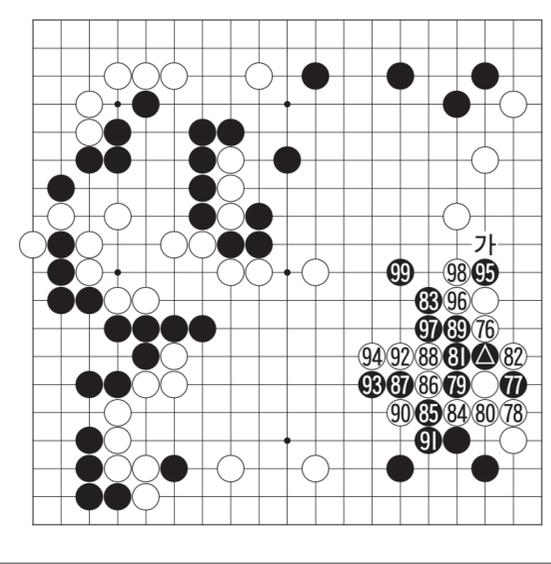
보다 더 풀기 어려운 것은 남녀간의 호감, 느낌, 연애의 감정이다. 곧 연애 감정이 정신연령보다 우위에 있다. 하물며 여기에 상대의 나이 정도는 문제 삼을 거리도 못 된다.
연애를 하면 젊어질 뿐만 아니라 성숙해진다. 표정, 옷차림 등 겉 모습 뿐만 아니라 말투도 정신연령도 연애상태에 따라 자연스럽게 젊어지거나 성숙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연애상태의 나이는 중요치 않다.
당신은 아름답고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이며 연애를 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우리는 스스로 연상 연하 커플에 대한 편견을 없애 왔고, 없애고 있다. 하지만 과연 어떻게? 어떻게 할까? 라는 걱정이야말로 이런 편견을 되살리는 작용을 하게 된다.
또 연애 중에 작은 트러블이라도 생기면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저럴까'라고 생각하는 습관은 스스로 접어두고 서로의 감정과 느낌에만 솔직한 연애를 하길 바란다.
그 어느 것에도 구애 받거나 선입견을 갖지 않는 자연스러운 연애야말로 소중한 인생의 추억이자 진정한 삶의 행복이다.
나이를 생각하는 순간 상대에 대한 편견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자칫 진정 숫자에 불과한 '나'가 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정말 소중한 인연을 지나쳐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무조건 연하남만을 찾는 여자나 연상녀만을 찾는 남자는 각별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 감정·느낌에 솔직해야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내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명언이기도 하다. '연상녀, 연하남'이라는 단어를 쓰는 자체가 연애 미개인으로 스스로를 모는 일이 되어버렸다.
만나서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고 서로에게 맞추어가고 길들여져 가는 것만이 아름답게 사랑하는 연인들의 공통된 모습이다.
단지 그 남자가기 때문에, 그 여자가기 때문에 좋아하게 되고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며 일단 감정이 앞서다 보면 나이는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어떤 식으로든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진정한 인연을 인연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할 수 있겠다.
결혼정보회사 닥스클럽(www.daksclub.com)
문의 : 1588-6665
<닥스클럽(주) 대표권선트>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 지역바둑대회
유명한 급수 5보(76~99)
백 유병수 5단 <포스코>
흑 박명수 5단 <농협>
좌변의 전투에서 흑이 백 석점을 잡는 전과를 올렸지만 오히려 대세를 잃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집부족의 양상으로 간다. 그래서 박명수 5단이 흑으로 붙여 승부수를 던져 간 장면이다. 이곳은 유명한 모양의 급수다. 그러나 이곳은 '가'에 흑이 있을 때 성립하는 수로 지금은 백이 '참고도1'의 1로 위에서 막아도 13까지 흑이 잡히고 만다. 백 76은 유병수 5단의 몸조심, 그런데 이렇게 움직려들면 오히려 수를 내주게 되는데 다음의 흑 77이 흑심을 부린 수로 이 수로는 '참고도2'의 흑 1로 붙이고 이하 5까지 선수는 정도였다. 실전은 77의 한점이 잡혀 손해를 보고 있다. 이 수로 인해 99까지 흑이 점점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이세돌 박카스배 결승1국 승
이세돌 9단이 지난 7일 한국기원에 서 열린 제11기 박카스배 천원전 결승 5번기 제1국에서 조한승 9단에게 157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지난 4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GS칼텍스배 도전 1국에서 최철한을 상대로 대 세력자전을 선보였던 이 9단은 이날도 적극적인 중앙작전을 펼친 끝에 가볍게 승리를 챙겼다.
현재 한국물가정보매 타이틀 보유자인 이 9단은 GS칼텍스배와 천원전, KBS바둑왕전 등 3개 기전 결승에 올라 있으며, 모두 1국을 승리해놓은 상태. 이세돌 9단이 선승을 거둔 천원전 결승 2국은 오는 23일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9일(음 9월 19일 壬寅)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the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굿모닝 잉글리쉬 <772> 오하이오 니혼고 <772> 니하오 풍구워 <490> 한자 이야기 <390>

I'll be hanged if I do such a thing!
난 그런 짓은 안 한다!
A: You look stuck. Why don't you go and ask George for his help?
B: I'll be hanged if I do such a thing!
A: Don't you trust him?
B: He is the last person I'd even ask for help.
A: 너, 어려워 보이는데, George한테 가서 도와 달라고 부탁해 보지 그래.
B: 난 그런 짓은 안 한다!
A: 난 그 사람을 불신하니?
B: 내가 설령 부탁하는 일이 있다 해도, 그 사람한테는 안 해.
in 'out of' stuck '구어' 곤경에 빠져 '버텨내'
I'll be hanged if ~ : 절단코 ~ 안 한다; 절대로 ~한 일은 없다
- I'll be hanged if I do so. (설마 내가 그런 짓을 할라구, 그런 짓을 누가 해.)
ask for ~ : ~을 부탁하다

そんなに急(せ)かさなくてくれよ
그렇게 재촉하지 말아 줘
A: ええと、パスポートと、財布(さいふ)と...それから。
B: ぐずぐずしていると、空港(くうこう)バスが出(で)ちゃいますよ。
A: そんなに急(せ)かさなくてくれよ。僕は海外旅行(かいがいりょこう)は、はじめてなんだから。
B: でも、あと10分(じゅうぶん)しかないわよ。本當(ほんとう)に間に合(あ)わなくなっちゃうから。
A: 음, 여권하고 지갑... 그리고...
B: 꾸물거리고 있으면 공항버스가 출발해 버려요.
A: 그렇게 재촉하지 말아 줘. 난 해외여행은 처음이니까...
B: 하지만 앞으로 10분밖에 없어요. 정말로 제시간에 못 가게 되 버릴 테니까...
パスポート : 여권
財布(さいふ) : 지갑
出(で)ちゃう : 가버리다
急(せ)かす : 재촉하다
間(ま)に合(あ)う : 그시간에 늦지않게 가달라

吃醋
질투하다
A: 你吃醋小玉为什么吃醋不好吗?
B: 吃醋不好, 但是吃醋可以让你知道他在想什么.
B: 吃醋不好, 但是吃醋可以让你知道他在想什么.
A: 她看见男朋友跟别的女孩子在一起吃饭了.
B: 这算什么, 嫉妒心太强了.
A: 为什么你总是吃醋?
B: 因为我太在乎你了.

火藥(화약)
불 화, 약 약
화약(火藥)은 고려가 남긴 귀중한 유산(遺産)중의 하나이다. 고려 말기에는 왜구(倭寇)의 침입이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공민왕이 죽고 우왕이 즉위하던 해인 1375년에서 1379년까지의 기록을 보면, 90여회에 걸쳐 200여 곳을 침입(侵入)하였다. 이 당시 왜구들은 바닷가 마을만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섬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내륙에 까지 올라와 노략질을 하였다.
고려는 당시에 원과 명 사이에서 양면외교를 벌이며 왜구를 물리치기 위한 무기(武器)와 화약을 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명의 홍무제는 고려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화약의 필요성을 절감한 최무선은 혼자서 화약 제조 연구에 몰두하였으나 거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던 중 벽란도에 와있는 중국 상인에게서 기술을 배워 화약제조에 성공하고, 20여 종류의 무기를 개발하였다.
왜구들은 고려의 화약무기의 위력에 놀려 노략질을 중단하였고, 나아가 조선초기의 쓰시마정벌에서도 위력을 발휘하였다. 최무선의 화약개발은 군사 10만명 보다도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